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30, 1996, 112-138

전문직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과 대응전략 : 남녀 간 공변량 구조모형 비교

이 명 신*

Ⅰ. 서론
Ⅱ. 문헌연구
Ⅲ. 가설적 연구모델 개발을 위한 논의
Ⅳ. 연구방법
Ⅴ. 연구결과
Ⅵ. 결론 및 제언

Ⅰ. 서론

산업화 및 자본주의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점점 많은 기혼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함에 따라 지난 50여년간 "맞벌이 가정"은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선진국에서는 맞벌이 가정이 보다 일반적인 가족형태가 되어가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2년 현재 결혼한 가정 주부의 59%가 노동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어머니의 67%가 가정 밖의 일터에 취업하고 있다.[1] 한국의 경우에도, 1970년에 39%를 차지했던 여성의 노동 참여가 1992년에는 48%로 꾸준히 증대되었으며, 취업 여성의 63%가 기혼임이 밝혀졌다.[2]

맞벌이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 속에서, 기혼여성의 취업이 가정생활에 끼치는 영향 및 맞벌이 가정 생활의 문제점 등은 사회복지학을 비롯한 정신건강 분야 등의 학계와 사회전반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맞벌이 가정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보다 중요한 이유는 취업 여성들과 그들의 남편이 맞벌

*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

1) U.S. Dept. of Labor, Women's Bureau, "Facts on Working Women," No. 93-2, Washington, D,C.: U.S.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3.

2) 한국통계청, 『한국의 지표』, 1993, pp. 77-83.

이 가정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변화에 대처해 나가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화가 급속히 전개되는 과정에서 여성 노동력의 필요성이 급증됨에 따라 기혼여성의 취업이 점차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러한 여성의 경제적 역할변화에 비해 더디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제도 및 성역할 규범 등으로 인해 문화지체(cultural lag)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맞벌이 가정생활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3] 노동참여를 통하여 가정 살림을 전담하던 주부로부터 가정 밖의 취업을 통한 직장인으로 기혼여성들의 역할이 변화됨에 따라, 종래에 부인들이 전적으로 담담해온 가사일, 가정내 역할을 재분배해야할 필요성이 증대되어, 가정내 역할 및 개인적 정체성의 재평가를 통한 가족관계의 재수립, 가정 생활자체의 재구성이 불가피하게 되었다.[4] 이와 같이 부인의 취업과 더불어 가정내의 평등한 가사분담에 대한 필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녀의 성별화된 역할을 지지하는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가운데, 취업을 통한 부인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상응하는 가정내 역할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현행 사회,경제제도 역시 기혼 여성들의 취업으로 인한 변화를 반영하지 않은 채, 아직도 남편만이 유일한 생계부양자인 가정을 일반적 표준으로 삼고 있어 기혼 여성들의 경제적 역할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여성의 경제적 역할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더디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제도 및 전통적 성역할규범의 잔존 영향력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중에서 맞벌이 부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어려움은 가정생활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극심한 역할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직장의 일과 가정 생활을 병행해 나가기 위해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역할들(배우자, 부모, 직장인) 사이에서 느끼는 역할간 갈등(inter-role conflict), 그리고 자신의 성에 적합한 행동이라고 배워온 보다 전통적 역할과 맞벌이 상황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현재 새롭게 배워야하는 남녀간의 보다 평등한 역할의 괴리로부터 역할에 대한 기대의 불일치로 겪게 되는 역할내 갈등(intra-role conflict)은 맞벌이 부부들이 가정과 직장의 양립과정에서 겪게 되는 대표적인 역할갈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역할갈등들은 맞벌이 부부들이 가정 내 역할과 생활패턴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결혼생활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키거나, 부부들이 경험하는 엄청난 스트

---

3)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2, pp. 193-194.

4) Rapoport, R. & Rapoport, R. "The Dual Career Family," *Human Relations*, vol. 22, 1969, p. 3.

레스의 원천이 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경험하는 역할갈등은 스트레스와 결혼 불만족을 고조시킴으로서 맞벌이 부부의 심리적 안녕 및 결혼생활에 해로운 영향을 줄 뿐아니라, 이와 같은 갈등, 스트레스, 불만족이 적절하게 해소되지 못할 경우, 가정내 폭력, 자녀 및 배우자 학대, 약물남용, 정신질환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가정생활을 위협하는 부부간 불화나 이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은 심각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맞벌이 상황에서 직면하게 되는 역할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의 이중역할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사회복지 서비스나 맞벌이 가정 지원정책이 미개발된 현 시점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구조적 지원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모색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맞벌이 부부들이 경험하고 있는 역할갈등과 이러한 역할갈등의 완화를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이들 부부가 취하고 있는 대응전략에 대한 이해는 맞벌이 부부들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풀어나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절박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맞벌이 가정 생활의 핵심적 문제가 되고 있는 역할갈등과 스트레스, 이를 완화시키기 위해 맞벌이 부부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응전략, 이러한 대응전략의 선택결정과정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맞벌이 상황에서 부인과 남편이 경험하는 역할갈등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맞벌이 부부가 각기 사용하는 대응전략에 있어서의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구조적·상황적 요인, 역할갈등, 결혼만족도, 스트레스, 대응전략간의 상호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이론 모델을 개발하여, 남성 모델과 여성 모델을 비교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맞벌이 부부가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양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증진시키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상담 서비스 및 사회복지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으리라 본다.

II. 문헌 연구

1. 맞벌이 가정의 문제점 : 스트레스와 역할갈등

Rapoport & Rapoport(1972)는 여성의 노동참여가 증대되고 많은 여성들이 보다 높은 교육적 성취를 이루게 됨에 따라 후기 산업사회에는 성별에 의거한 역할

분리에 기반을 둔 전통적 가정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새로운 형태의 가정이 대두되리라 예견했다.[5] Rapoport & Rapoport(1969)는 남편과 아내 모두 지속적인 성장, 발달을 요하는 평생직에 전념하면서 동시에 가정생활을 유지해 나가는 이 새로운 형태의 가정을 'dual-career family'라고 명명하였다.[6] 그러나 남편, 아내 모두에게 가정과 직장의 양립 허용 및 보다 평등한 역할 분담이라는 맞벌이 가정의 전제 조건은 맞벌이 부부들로 하여금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은 맞벌이 가정의 기본적 전제가 전통적 성역할 규범 및 현행 사회제도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여성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어머니, 아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전통적 성역할 규범이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사회제도가 여성의 경제활동상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더딘 속도로 변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맞벌이 부부들은 가정생활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Rapoport & Rapoport(1972)과 Bebbington(1973)는 이러한 스트레스를 맞벌이가정을 특징 지우는 핵심적인 문제점으로 보았다.[7] Rapoport & Rapoport(1972)는 맞벌이 가정의 스트레스의 근원을 역할과중, 정체성 갈등, 가족생활주기 갈등, 사회규범과의 갈등, 사회관계망 갈등의 5 가지로 제시하였다.[8] Rapoport & Rapoport(1972)가 스트레스를 맞벌이 가정생활의 특성으로 지적하고 그러한 스트레스의 근원으로서 여러 종류의 역할갈등(역할과중, 정체성 갈등, 사회규범과의 갈등 등)을 제시한 점은 맞벌이 부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한 관점을 제시해 주었다. 이러한 역할갈등은 맞벌이 부부 개인의 삶의 질 및 그들의 결혼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맞벌이 가정의 핵심 문제점(스트레스와 역할갈등)임이 후속연구를 통하여 재확인되고 있다.

2. 역할갈등과 스트레스

직장생활과 가정에서의 역할간의 균형을 이루어 나가려고 애쓰는 가운데 맞벌

---

5) Rapoport, R. & Rapoport, R., "Dual-career family: A variant pattern and social change.," *Towards Sociology of Women*, Lexington, Xerox College Publisher, 1972, pp. 216-219.

6) Rapoport, R. & Rapoport, R., 앞의 글, 1969, p. 3.
'dual-career family'는 부인과 남편 모두 고도의 전념을 요하는 전문적 평생직에 종사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종류의 직장이건 부부 모두 직장에 다니는 일반적 의미의 '맞벌이 가정(dual-earner family)'과는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Rapoport & Rapoport가 명명한 'dual-career family'를 '전문직 맞벌이 가정'이라고 번역하였다.

7) Rapoport, R. & Rapoport, R., 앞의 글, 1972, pp. 216-219; Bebbington, A.C., "The Function of Stress in the Establishment of the Dual Career Family,"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vol. 35, 1973, p. 530.

8) Rapoport, R. & Rapoport, R., 앞의 글, 1972, pp. 221-241.

이 부부들이 직면하게 되는 어려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경험하는 역할갈등이 그들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맞벌이 상황에서 부부들이 경험하는 역할갈등, 이러한 역할갈등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맞벌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가정내 역할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들은 이제까지 그들이 익숙해져 있는 전통적 성역할을 버리고, 새로운 역할과 새로운 생활양식으로 자신들을 재사회화 시켜야하는 압력을 느끼게 되며, 이러한 상황에서 맞벌이 부부들은 역할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남편은 전통적으로 여성이 전적으로 담당하던 일을 해야만 하게 된 것에 대해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이와 같은 역할분담의 요청에 저항하기 쉽고, 부인들 역시 전통적 어머니, 아내 역할로부터의 변화에 대해 양면적 감정을 가질 수 있다.[9] 이와 같이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 필수 요건인 보다 평등한 역할분담에 대해, 양면적 감정이나 불편함을 표현하게 되는 것은 이와 같은 변화가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내면화된 역할기대와 상충되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에 적합한 행동이라고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배워온 전통적 성역할과 맞벌이 가정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 현실에서 필요한 보다 양성적 역할 사이에서, 맞벌이 부부는 역할기대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역할내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역할내 갈등이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이 선행연구를 통하여 시사되었다.

동시에 직장과 가정의 이중부담속에서 맞벌이 부부들을 가정내 역할과 직장인 역할에서 요청되는 모든 요구를 동시에 다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상충되는 요구를 지닌 다양한 역할들 사이에서 극심한 역할간 갈등을 느끼게 된다. 이와 같이 맞벌이 부부들이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역할간 갈등이 고조되며 결과적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야기시킨다는 사실은 경험적 연구 결과 확인되었다.[10]

선행 연구들은 가정과 직장을 양립해나가는 과정에서 맞벌이 부부들은 역할간 갈등, 역할내 갈등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역할갈등들은 그들이 경험하는 엄청난 스트레스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다.

한편, 기존 연구 결과들은 맞벌이 부인과 남편이 경험하는 역할갈등의 성격에

---

9) Googins, B. & Burden, D., "Vulnerability of Working Parents: Balancing Work and Home Roles," *Social Work*, vol. 32, 1987, p. 295.

10) Gilbert, L.A., Holahan, C.K. & Manning, L., "Coping with Conflict Between Professional & Maternal Roles," *Family Relations*, vol. 30, 1981, pp. 423-425; Coverman, S. "Role Overload, Role Conflict and Stress: Addressing Consequences of Multiple Role Demands," *Social Forces*, vol. 67, 1989, pp. 975-980; Sekaran, U., "The Paths to Mental Health: An Exploratory Study of Husbands and Wives in Dual-Career Familie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vol. 58, 1985, pp. 134-136.

있어 성차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Ross, Mirowsky & Huber(1983)는 전통적 역할로부터 좀더 평등한 역할로 전환함에 있어, 남편들에게는 자아 존중감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반면, 아내들에게는 가사 일에 남편의 도움을 얻어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11] 남성들은 그들의 인생 목표, 자아의식의 기반을 남성다움, 생계부양자 역할과 연관된 전통적 가치에 두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좀더 평등한 역할분담을 요구할 때 그들의 자아정체성의 중심이 되는 전통적 남성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을 매우 어렵게 여긴다.[12] 그러므로, 남편들은 위축된 자아감, 당혹감, 죄의식, 부인의 취업에 대한 염려 등으로 부인들 보다 심한 자아 정체성 갈등으로 인한 역할내 갈등을 경험하기 쉽다. 이처럼, 남편들이 역할내 갈등을 겪기 때문에 전통적 성역할을 변화시키는 것에 저항하고 역할분담에 있어 매우 소극적 반응을 보이는 반면, 여성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직장과 가정의 요구를 한꺼번에 다 만족시키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역할간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기 쉽다.

기존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역할내 갈등과 역할간 갈등은 맞벌이 부부가 겪는 스트레스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맞벌이 부인과 남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각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3.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맞벌이 상황에서 부부가 경험하는 역할갈등이 결혼의 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과 더불어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이 그들의 결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였다.

Burke & Weir(1976)는 맞벌이 가정 생활 패턴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인과 남편에게 요구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하는 결혼만족도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가정했다. 맞벌이 상황에서 수행하도록 기대되는 역할과 자신이 지니고 있는 자신의 이미지 사이의 심각한 괴리 때문에 맞벌이 가정의 남편들은 심한 정체성 갈등을 느끼게 되고, 부인의 취업으로 인해 얻는 어떠한 이득과 혜택도 남편이 이러한 정체성 갈등으로 인해 경험하는 어려움을 상쇄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 결과 결혼에 불만족하게 되며 더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고 보았다.[13] 반

---

11) Ross, C.E., Mirowsky, J. & Huber, J., "Dividing Work, Sharing Work, and In-Between: Marriage Patterns and Depress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48, 1983, p. 82.

12) Gilbert, L.A., 앞의 글, 1985, p. 9.

13) Burke, R.J. & Weir, T., "Relationships of Wives' Employment Status to Husbnad, Wife and Pair Satisfaction and Performanc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38, 1976, p. 285.

면에 부인들은 일을 통하여 긍정적인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로 자신의 이미지를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맞벌이 상황에서 자아 정체감 갈등을 적게 느끼게 되며, 그 결과 보다 만족스런 적응을 이룬다고 보았다.[14]

Burke & Weir의 연구결과는 맞벌이 가정생활 패턴이 부인보다는 남편에게 더 심각한 정체성 갈등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남편들은 결혼에 불만족할 가능성이 높고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리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Burke & Weir의 연구는 정체성갈등(본 연구에서는 역할내 갈등으로 개념화되었음)이 맞벌이 부부의 스트레스와 결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갈등의 하나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이와 같은 정체성갈등이 맞벌이 부부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직접 연구하지는 않았다. 다만, 취업주부와 전업주부, 취업주부의 남편과 전업주부 남편의 결혼만족도와 스트레스를 비교함으로써, 정체성갈등, 결혼만족도, 스트레스간의 관계를 추정하는 데 그치고 있다.

한편,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남편들이 심각한 정체성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보다 평등한 역할분담을 위한 역할변화에 저항할 가능성이 크다. 그 결과 맞벌이 부인들은 집밖에서의 노동참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사와 아동양육의 책임을 지는 이중부담으로 말미암아 격심한 역할간 갈등을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와 같이 예상되는 부인의 역할간 갈등과 결혼불만족의 부정적 관계는 경험적 연구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못하였다. Coverman(1989)의 연구결과는 가정과 직장이 상충된다고 느끼는 인식(역할간 갈등)은 남편의 결혼만족도를 감소시켰지만, 부인의 결혼만족도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15] 그러나 Chassin et al.(1985)의 연구는 역할에 대한 기대의 불일치로 인한 역할내 갈등 뿐아니라, 상충되는 역할사이에서 느끼는 역할간 갈등이 맞벌이 부부 양자의 결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6]

선행연구 결과들이 이론적으로 제시한 예측이 경험적 자료에 의해 검증되지 않았거나, 검증된 결과들이 불일치를 보이고 있어, 두 종류의 역할갈등과 남편과 부인이 경험하는 결혼만족도간의 관계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이론개발 및 검증이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들이 경험하는 역할갈등이 각기 그들의 스트레스 및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사하기 위해, 두 가지 역할갈등(역할내 갈등, 역할간 갈등), 결혼만족도, 스트레스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이론적 모형개발이 필요하다.

---

14) Burke, R.J. & Weir, T., 앞의 글, 1976, p. 285.

15) Coverman, S., 앞의 글, 1989, pp. 975-980.

16) Chassin, L., Zeiss, A., Copper, K. & Reaven, J., "Role Perceptions, Self-Role Congruence and Marital Satisfaction in Dual-Worker Couples with Preschool Children,"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48, 1985, p. 301.

4. 대응전략

맞벌이 부부들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양립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역할갈등의 극복은 맞벌이 부부 각자가 이러한 상황에 부여하는 의미와, 이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응 방안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Gilbert(1985)는 맞벌이 부부들이 역할갈등을 극복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한 행동계획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세 종류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1) 주어진 갈등 상황의 의미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문제상황에 대한 인지적 재구조화(cognitive restructuring), 2) 문제 자체의 해결보다는, 자신에게 부여된 이중역할을 성공적으로 모두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전략(increased role behavior), 3) 문제 또는 갈등의 근원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대감의 조정 및 역할변화를 시도하는 사회구조적, 개인적 차원에서의 역할을 재정의 하는 전략(structural & personal role redefinition).[17]

Gilbert(1985)는 맞벌이 가정의 남편들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어떠한 대응전략을 주로 사용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이들 맞벌이 남편들이 이중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대응책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의 기간이 길 수록 점차 사회구조적, 개인적 역할재정의 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18] 한편,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기혼여성들의 역할갈등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결과는 역할재정의 전략을 사용하는 여성들이 역할증대 전략을 사용하는 여성들에 비해 역할갈등 극복의 효과성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을 발견했다.[19] Guelzow, Bird & Kaball(1991)은 대응전략을 통하여 역할긴장이 어떻게 완화되어 질 수 있는가를 역할긴장의 근원, 역할긴장, 대응전략, 스트레스, 디스트레스 간의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는 역할긴장을 많이 느끼는 남편들은 역할축소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역할긴장을 많이 느끼는 부인들은 인지적 재구조화전략을 적게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역할긴장이 높은 경우, 긍정적 의미부여, 태도 변화 등을 통한 인지적 재구조화 전략은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데 있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다.[20]

대응전략에 대한 선행연구는 맞벌이 부인과 남편이 사용하는 대응전략 및 그 효과에 대한 상반되거나 일관성 없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역할갈등을 극복하

---

17) Gilbert, L.A., 앞의 글, 1985, p. 96.
18) Gilbert, L.A., 앞의 글, 1985, p. 97.
19) Gilbert et al., 앞의 글, 1981, p. 423.
20) Guelzow, M.G., Bird, G.W. & Koball, E.H., "An Exploratory Path Analysis the Stress Process for Dual-Career Men an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53, 1991, pp. 151-164.

기 위한 대응전략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상황에 관계없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대응전략의 선정과 이러한 대응전략을 맞벌이 부부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지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하다.

5. 스트레스와 대응전략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Selye의 이론 및 경험적 연구의 결과에 바탕을 두고 있는 반응에 기초한 스트레스 이론에서는 스트레스를 "신체에 가해지는 외부로부터의 자극 및 요구에 대한 신체의 불특정한 반응"이라고 정의하고 있다.[21]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환경적 상황 및 사건에 대한 개인의 반응을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상태로 보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빈번하게 반복되는 스트레스원에 노출된 탓으로 일어나는 신체적, 생리적 증후의 측정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다.[22]

한편, 자극에 기초한 스트레스 이론에서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그 결과 파괴적인 신체적, 심리적 결과로 이끄는 환경적 상황 또는 인생의 특정 사건들을 스트레스로 개념화하고 있다. 스트레스원을 스트레스로 보고 있으며, 개인이 경험하고 있는 환경적 스트레스 측정에 주로 촛점을 두고 있다.[23]

스트레스를 외부로부터의 자극이나 이에 대한 반응으로 보는 위의 두 관점과는 달리, Lazarus의 인지적 평가모델은 환경자극과 개인의 적응기제 간의 계속적인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상호과정에서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해롭거나, 위협적이거나, 도전적인 정도와 자신의 대응능력에 대한 개인의 인지적 평가가 스트레스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24] 이러한 스트레스 모델은 인지적 평가를 바탕으로 특수한 대응책이 선택되고 이러한 대응전략이 스트레스 결과에 영향을 주며, 스트레스에 대한 재평가가 다시 대응전략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는 설명을 통하여 스트레스와 대응 사이에 양쪽 방향(bidirectional)의 인과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25]. 이와 같은 스트레스와 대응사이의 순환적(recursive) 관계에 대한 인식에도 불구하고[26] 현재까지의 경험적 연구결과들은 대응행동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만 치중하고 있

---

21) Selye, H., *The Stress of Life*, New York, McGraw-Hill, 1985, p. 17.
22) Derogatis, L.R., "Self-Report Measurement of Stress," *The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 Clinical Aspects*, New York, The Free Press, 1982, pp. 270-294.
23) Derogatis, L.R., 앞의 글, 1982, pp. 270-294.
24) Derogatis, L.R., 앞의 글, 1982, pp. 270-294.
25) Folkman, S. & Lazarus, R.S., "Coping as a mediator of emotion,"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vol. 52, 1988, p. 466.
26) Harris, J.R., "An Examination of the Transaction Approach in Occupational Stress Research," *Occupational Stress*, 1995, p. 23.

어, 스트레스와 대응행동간의 순환적 관계에 대해 만족스러울만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Ⅲ. 가설적 연구 모델 개발을 위한 논의

맞벌이 가정 생활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역할갈등이 맞벌이 가정생활 및 부부 개인의 심리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을 주로 다루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역할갈등의 개념이 명확한 구별없이 사용되고 있거나, 각기 다른 방식으로 개념화되어 혼동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들을 비교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흔히 직면하게 되는 역할갈등을 두 가지로 나누어 개념화하였다: 1) 사회화 과정을 통해 학습된 전통적 성역할과 맞벌이 상황에서 현재 기대되는 보다 양성적인 역할 사이의 불일치 때문에 겪게 되는 '역할내 갈등'과, 2) 가정과 직장이라는 두 영역에서 동시에 담당하고 있는 서로 상충되는 요구를 지닌 역할들 사이에서 느끼는 '역할간 갈등'으로 구분하였다.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과 스트레스를 고조시키는 사회구조적, 상황적 요인(성역할 고정관념,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근무시간), 두 종류의 역할갈등(역할내 갈등, 역할간 갈등), 결혼만족도, 스트레스로 이루어진 이론적 연구 모델이 일차적으로 개발되었다. 선행연구들은 맞벌이 가정생활이 부부 개개인의 심리적, 신체적 안녕과 그들의 결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만으로 그칠 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대응책이 마련되고 실행되고 있는가를 조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역할갈등 및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 맞벌이 부부가 채택하고 있는 대응전략을 모델에 시안적으로 첨가시키고자 한다. 본 연구모델에서는 Gilbert(1985)가 제시한 사회구조적·개인적 역할 재정의 전략을 가정내 역할 재분배를 위한 가족들의 역할 및 기대치의 변화를 시도하는 '가족변화전략'과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기대치를 변화시키고자하는 '자신의 변화전략'으로 분리시켰다. 이 두 가지 대응전략과 함께 역할증대전략을 세 번째 대응전략으로 이론적 연구모델에 포함시켰다.

대응전략을 연구모델에 포함시키는 과정에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스트레스와 대응전략의 인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스트레스와 대응전략 사이의 순환적 관계는 대응행동과 스트레스 사이의 인과적 추론을 어렵게 하고 있다.

현재까지의 역할갈등과 스트레스, 이에 대한 대응전략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

서는 스트레스원이 되고 있는 상황적 요인, 이에 대한 인지적 평가에 의거하여 취해지는 대응행동전략, 그리고 스트레스 결과로 이어지는 일방향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27]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결과변수로서 스트레스(또는 디스트레스)를 측정함으로써 역할갈등 및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응전략의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치중하였다. 이 연구들은 어떠한 대응전략이 역할갈등 및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인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들이 경험하고 있는 역할갈등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대응전략이 이용되고 있는지, 이러한 대응전략이 선택되고 실행에 옮겨지는 과정에 대해 아직까지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28] 이와 같은 상황에서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대응행동전략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만으로는 상황적 스트레스원에 대한 인지적 평가, 대응전략 선택 및 시행, 이에 대한 인지적 재평가라는 복잡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인다. 역할갈등과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에서 대응전략선택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살펴본 후, 대응전략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것이 이와 같은 스트레스와 대응이라는 복잡한 과정의 이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적, 구조적 스트레스 원에 대한 인지적 평가(또는 주관적 평가)가 대응전략의 선택 및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밝히기 위해, 역할갈등, 결혼만족도 및 스트레스간의 상호작용을 이와같은 인지적 평가가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으로 설정하였다. 스트레스를 결과변수로 다룬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스트레스를 이와 같은 심리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간변수의 하나로 설정하여, 상황적, 구조적 스트레스원이 역할갈등, 결혼만족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과정이 대응전략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볼 수 있는 이론적 모델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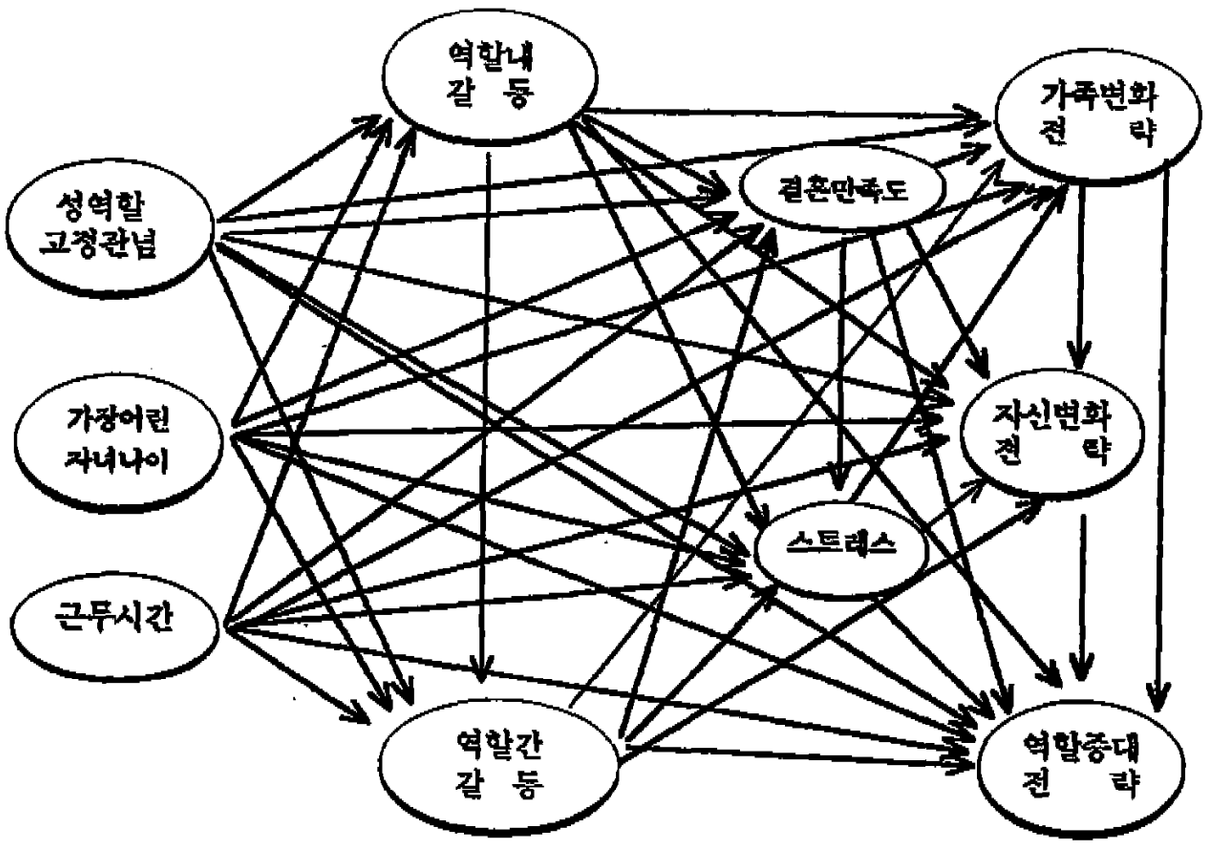
본 연구의 이론적 모델은 세부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부분은 맞벌이 부부의 스트레스 및 역할갈등을 결정하는 사회구조적, 상황적 요인(스트레스원)이다. 사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역할관념을 맞벌이부부가 내면화한 정도, 어린 자녀의 요구(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시간적 제한(근무시간)으로 구성하였다. 두번째 부분은 이러한 스트레스원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으로서, 맞벌이 부부가 겪는 두 종류의 역할갈등(역할내 갈등, 역할간 갈등), 결혼만족도, 스트레스가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중점을 두었다. 세번째 부분은 스트레스원과

---

27) Gilbert, L.A., 앞의 글, 1985, pp. 91-119; Gilbert, L.A. et al., 앞의 글, 1981, pp. 419-426; Guelzow et al., 앞의 글, 1991, pp. 151-164.

28) Edwards, J.R., "The Determinants and Consequences of Coping with Stress," *Causes, Coping & Consequences of Stress at Work*, Chichester, GB, John Wiley, 1988, p. 233.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심리적 과정)의 결과로 선택되는 대응전략(가족을 변화시키는 전략, 자신을 변화시키는 전략, 변화없이 자신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맞벌이 부부에게 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사회구조적·상황적 요인,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의 결과가 대응전략의 선택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그림 1>과 같은 가설적 연구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29]



<그림 1> 연구분석모델((Hypothesized Research Model)

29) 위에 제시된 가설적 연구모델은 42개의 이론변수간의 상호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42개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은 공변량구조분석을 통하여 최적의 남성 이론구조모델, 여성 이론구조모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검증될 것이다.

Ⅳ. 연구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어떤 종류의 직업이건 상관없이 부부 모두 직장에 다니는 일반적 의미의 포괄적인 맞벌이 부부(dual-earner couples)를 연구의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남편과 부인 모두 자신이 하는 일에 전념을 요하는 전문적 평생직에 종사하는 맞벌이 부부(dual-career couples)로 제한하였다.

전문직 맞벌이 부부로 연구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구성체들로 설정된 이론을 검증하기 위한 자료수집들 위해 구조화된 자기-보고식 질문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응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교육수준을 지닌 집단으로부터 응답을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부부 모두가 전문적 평생직에 종사하는 경우, 자신의 일을 통하여 지속적인 성장, 발달을 위해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전념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다른 직종에 종사하는 부부보다 맞벌이 가정생활로 부터 경험하는 역할갈등과 스트레스 등과 같은 심리적 과정에 더 민감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와 아울러, 전문직 맞벌이 부부(dual-career couples)가 함께 거주하며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다른 경우의 맞벌이 부부 보다 가사 및 자녀양육의 부담을 재분배할 필요성을 더욱 심각하게 느끼며, 역할갈등 및 스트레스와 결혼 불만족을 더 많이 느낄 것이라는 가정 하에,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미성년 자녀를 가진 전문적인 평생직에 종사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를 조사의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시간 및 재정적 한계와, 한국의 모든 전문직 맞벌이 가정을 총망라하는 명단이 없다는 제한점 때문에, 연구자 판단에 따라서 모집단의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목적 표본추출법(purposive sampling)에 의하여 추출하였다. 표본으로 추출된 220명의 전문직 맞벌이 부부 중에서 191쌍의 부부가 1994년 3월에서 4월사이에 실시된 설문조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응답률은 86.9%였다.

표본으로 선택된 맞벌이 부부들의 일반적 특성은, 남편의 평균연령은 35.3세, 부인의 평균연령은 33.3세, 평균 결혼기간은 약 7.34년(88개월), 평균 자녀수는 1.6명이었다. 남편의 16%, 부인의 20%가 전문직(교수, 의사, 변호사 등), 남편의 23%, 부인의 7%가 고위 경영관리직(금융,기업, 방송계 회사간부), 남편의 약 36%, 부인의 47%가 중간관리직(과장급 이상, 사회사업가, 간호사, 교사 등), 남편의 23%, 부인의 24%가 사무직에 종사하고 있었다. 평균 월수입은 남편의 경우 193만원, 아내의 경우 140만원이었으며,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남편이 약 49 시간, 아내가 약 42

시간이었다. 이들 맞벌이 가정의 23%는 확대가족, 20%는 수정확대가족, 그리고 57%는 핵가족의 가정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2. 측정도구

맞벌이 부부들이 직면하는 역할갈등 및 스트레스를 증대시키는 요인(성역할고정관념, 자녀의 나이, 근무시간), 두 종류의 역할 갈등, 결혼만족도, 스트레스, 세 종류의 대응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를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이론적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요인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추출되었다.

1) 성역할 고정관념(5문항)

사회에서 바람직하다고 규정한 여성의 역할에 대한 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어머니로서의 여성의 역할 (1문항), 아내로서의 여성의 역할 (2문항), 기혼여성의 취업 (2문항)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위의 5 문항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성역할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타당한 문항으로 추출되었다.[30] 리커트식 4점 척도를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여성의 역할에 대한 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측정문항들의 신뢰도를 Cronbach의 알파 신뢰계수로 산출한 결과, 남성의 경우 0.79, 여성의 경우 0.62였다.

2)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자녀가 어릴수록 맞벌이 부부가 겪는 어려움이 증폭되리라는 가정하에,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를 측정하였다.

3) 주 근무시간

근무시간이 길어질 수록 맞벌이 부부들의 스트레스와 역할갈등이 증가되리라는 가정하에, 1주일에 평균적으로 일하는 시간의 총계를 측정하였다.

---

30) Gump, J.P., "Sex-Role Attitud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Social Issue*, vol. 28, 1972, pp.83-85; Dunn, M.S., "Marriage Role Expectations of Adolescents," *Marriage & Family Living*, vol. 22, 1960, pp. 99-111; Mason, K.O., "Studying Change in Sex-Role Definition via Attitude Data: Proceedings of the Social Statistics Section,"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973, pp. 138-139; Scanzoni, J., Sex Roles, *Life Styles & Childbearing: Changing Patterns in Marriage and the Family*, New York, The Free Press, 1975.

4) 역할내 갈등(3문항)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배워온 성역할과 맞벌이 상황에서 요구되는 비전통적인 (양성적인) 역할 사이에서 느끼는 역할내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가 개발한 역할내 갈등척도를 사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세 문항이 역할내 갈등을 측정하기에 타당한 문항으로 추출되었다. 맞벌이 가정생활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전통적 성역할의 수정을 요하는 상황(예, 부인의 경우, 직장 일 때문에 주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경우, 일 때문에 밤에 집을 비워야 하는 경우, 직장일 때문에 아픈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을 제시하고, 이런 상황에서 느끼는 역할내 갈등을 측정하였다. 리커트식 4점 척도를 통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높은 역할내 갈등을 나타내도록 하였다. 이 문항들의 알파 신뢰계수는 남성의 경우 0.84, 여성의 경우 0.44였다.

5) 역할간 갈등(3문항)

가정 내에서의 역할과 직장에서의 역할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양립하기 어려운 이 두 가지 역할 사이에서 느끼는 역할간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①직장에 있을 때 집안일과 아이들을 걱정하는 정도 ②직장생활이 가정내 역할 때문에 지장 받는 정도 ③집안일 때문에 직장에서 몰두하기 어려운 정도를 측정하였다.[31] 이 세 문항은 요인분석을 통하여 역할간 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추출되었다. 리커트식 4점 척도를 통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역할간 갈등이 높음을 나타내도록 측정하였다. 세 문항들의 알파 신뢰계수는 남성의 경우 0.74, 여성의 경우 0.73였다.

6) 결혼만족도(2문항)

결혼생활 및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Lee(1978)가 개발한 Marital Satisfaction Scale 중에서 요인분석을 통하여 추출된 2문항을 사용하였다.[32] 리커트식 4점 척도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 수록 높은 결혼만족도를 의미하도록 하였다. 이 문항들의 알파 신뢰계수는 남성의 경우 0.81, 여성의 경우 0.78이었다.

---

31) Parry, G. & Warr, P., "The Measurement of Mothers' Work Attitudes," *Journal of Occupational Psychology*, vol. 53, 1980, pp. 245-252; Pendleton, B.F., Poloma, M.M. & Garland, T.N., "Scales for Investigation of the Dual-Career Family,"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vol. 42, 1980, pp. 269-276; Kopelman, ,R.G., Greenhaus, J.H., & Connolly,T.E., "A Model of Work, Family, and Interrole Conflict: A Construct Validation Study," *Organizational Behavior & Human Performance*, vol. 32, 1983, pp. 198-215.

32) Lee, G.R., "Marriage and Morale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vol. 40, 1978, pp. 131-139.

7) 스트레스(12문항)

맞벌이 부부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반복되는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정신 병리적 증후를 측정하는 척도보다는, 일반사람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느낄 수 있는 약한 정도의 신체적,심리적 스트레스를 측정하는 척도가 타당하다고 보인다. Langner의 스트레스 증세 척도 중에서 요인분석을 통하여 12문항을 추출하였다.[33] 리커트식 4점 척도를 사용하여, 높은 점수는 높은 스트레스를 의미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을 통해 산출한 알파 신뢰계수는 남성의 경우 0.93, 여성의 경우 0.92이었다.

8) 가족을 변화시키는 대응전략(2문항)

가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응전략을 측정하기 위해, Gilbert(1985)가 제시한 구조적, 개인적 역할 재정의의 개념에 입각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대응전략 척도 중에서 요인분석을 통하여 2문항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가족들과의 역할분담을 위해 가족들에게 역할을 변화시키도록 요구하거나,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가족들의 기대치 변화를 시도하는가에 대해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게 하여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1"을, "아니오"라고 한 경우에는 "0"으로 점수화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을 통해 산출한 알파 신뢰계수는 남성의 경우 0.61, 여성의 경우 0.63이었다.

9) 자신을 변화시키는 대응전략

자신을 변화시키는 대응전략은 맞벌이 상황에서 자신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나 역할갈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기 자신의 기대치를 낮추고자 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연구자 자신이 개발한 "수퍼우먼(수퍼맨)이 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가정에서의 자신의 역할(배우자, 부모)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었다"라는 문항을 통하여 자신의 변화전략을 측정하였다.

10) 자신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대응전략

자신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전략은 가정과 직장을 양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모든 임무 또는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 외부로부터 도움을 청하거나 외부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역할을 증대시킴으로써 대응하고자 하는 전략을 말한다. Gilbert(1985)의 역할증대전략의 개념에 입각하여 연구자가 개발한 "나는 우리 가족들이 내게 원하는 모든 것, 또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문항을 통하여 자신의 역할증대 전략을 측정하였다.

---

33) Horwitz, A.V., "Sex-Role Expectations, *Power and Psychological Distress*," *Sex Roles*, 1982, p. 611에서 재인용.

3. 자료 분석 방법

맞벌이 부부로 하여금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구조적, 상황적 요인이 맞벌이 부부 각자의 역할갈등, 결혼만족도,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변인들이 맞벌이 부부의 대응전략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인들 간의 상호인과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연구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공변량구조분석(covariance structur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공변량 구조분석은 회귀분석, 경로분석, 요인분석 등 종래의 통계 기법들을 통합한 최신의 진보된 기법으로 다른 기존의 어떤 통계분석 방법보다도 우월하다. 그 이유는 연구자로 하여금 관찰 변수와 가설적인 개념(이론변수)간의 관계 뿐아니라, 이론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산출해 낼 수 있도록 허용해주기 때문이다.[34] 직접 관찰을 통하여 측정할 수 없는 이론변수(latent variable) 간의 인과관계를 통계적 검증을 통하여 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제된 상황에서 실험을 통하여 변수들간의 인과관계를 측정하는 것이 어려운 사회과학자들에게는 유용한 자료분석 방법이라 할 수 있다.[35]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공변량구조 분석의 유용성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 공변량 구조분석을 위해 Joreskog과 Sorobom에 의해 개발된 LISREL 8.0(LInear Structural RELations) 통계팩키지가 사용되었다.

V. 연구 결과

1. 측정모델 검증을 위한 확인적 요인분석

맞벌이 부부가 경험하는 역할갈등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구조적, 상황적 스트레스 요인을 이루는 세개의 외생변수(성역할고정관념,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근무시간)의 측정모델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 외생변수의 남성, 여성 측정모델 모두 적절한 부합치를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남성모델: chi-square=7.280, df=4, GFI=0.982, CFI=0.955; 여성 모델: chi-square=4.157, df=4

34) Bollen, K. A.,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John Wiley Sons, 1989, p. 7.

35) Joreskog, K.G. & Sorobom, D., *LISREL 7: A Guide to the Program & Application,* Chicago, SPSS Inc., 1989, p.1.

GFI=0.990, CFI=0.997).

두 번째 확인적 요인분석은 일곱개의 내생변수(역할내 갈등, 역할간 갈등, 결혼만족도, 스트레스, 가족변화전략, 자신의 변화전략, 역할증대전략)의 측정모델을 검증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검증한 결과, 내생변수의 남성, 여성 측정모델 모두 적절한 부합치를 가지고 있음이 발견되었다(남성모델: chi-square=72.150, df=58, GFI=0.940, CFI=0.966; 여성 모델: chi-square=58.322, df=58, GFI=0.951, CFI=0.999).

2. 최적 공변량 구조모델 선정을 위한 이론 구조모델 비교

사회구조적, 상황적 스트레스원(성역할 고정관념,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 근무시간), 역할내 갈등, 역할간 갈등, 결혼만족도, 스트레스, 그리고 대응전략(가족변화전략, 자신의 변화전략, 역할증대전략)간의 상호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세개의 외생변수로 이루어진 측정모델과 일곱개의 내생변수로 이루어진 측정모델을 함께 합침으로써, 일반 공변량 구조모델(full LISREL model)을 형성하였다.

최적의 공변량 구조모델은, 보다 일반공변량 구조모델(포화모델)로부터 특징수(parameter)를 하나씩 고정시킴으로써 좀더 제한된 형태의 이론 구조모델로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하여 일련의 이론 구조모델을 비교함으로써 발견될 수 있다. 일련의 이론 구조모델 비교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론 구조모델의 적합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 Bentler(1990)가 가장 적절한 부합지수라고 추천한 '비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를 사용하였다.[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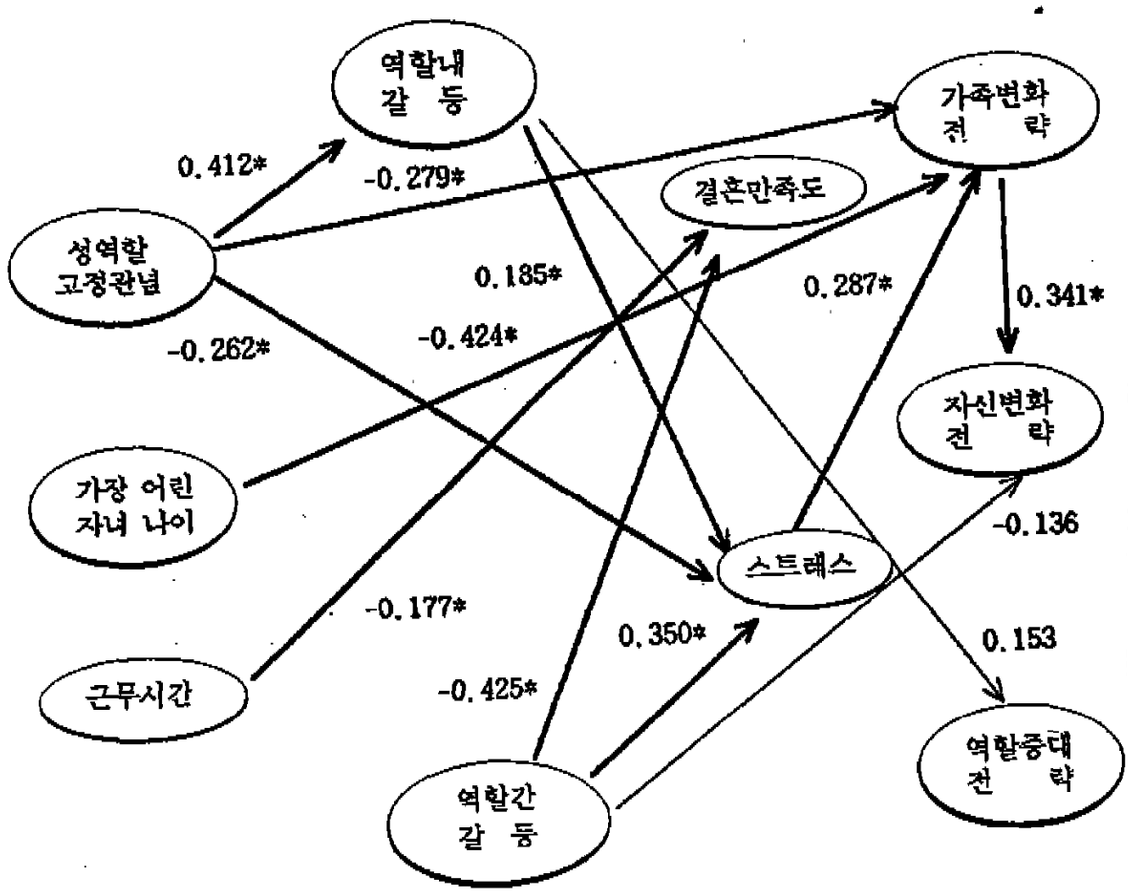
1) 최적의 공변량 구조모델 : 여성

본 연구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이론적 모델을 검증한 기존의 연구자료가 없기 때문에, 부합치(GFI)가 가장 높은 포화모델(df=111, chi-square=126.329, RMSR=0.054, GFI=0.915, CFI=0.967)을 준거모델(Reference Model)로 보아 일차적으로 가능한 최적의 모델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 모델에는 33개의 유의미하지 않은 이론 변수간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의미하지 않은 33개의 관계를 가장 약한관계부터 단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33개의 이론구조모델을 비교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론변수간의 관계가 대부분 유의미하고, 그리하여 인과

36) Bentler, P.M.,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vol. 107, 1990, pp. 238-246. Bentler는 30여개가 넘는 부합지수 가운데서, 표본의 변화에 그다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일련의 이론구조모델 비교시, 그 상대적인 부합도의 차이를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부합치(CFI)'를 가장 적절한 부합지수로 추천하였다.

적 관계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최적의 여성 공변량 구조모델이 발견되었다(df=144, chi-square=157.004, RMSR=0.070, GFI=0.893, CFI=0.972)(<그림 2> 참조).

이 최종적인 최적 모델(CFI=0.972)을 일차적인 최적 모델(CFI=0.967)과 비교할 때, 이론구조모델의 비교기준인 비교부합치(Comparative Fit Index)가 향상되었을 뿐아니라,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들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훨씬 간명함을 알 수 있다. 이 최종적 최적 모델에서는 이론변수간의 관계가 대부분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론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이론적 연구모델은 기존의 연구에 의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델의 검증보다는,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보이는 변수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탐색에 더 중점을 두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다소 인과관계의 강도가 약하다고 보이지만 (유의도 검증에 있어 경계선상에 있음), 이론개발을 위해 흥미롭게 생각되는 두 관계(역할간 갈등과 자신의 변화전략, 역할내 갈등과 역할증대전략)를 모델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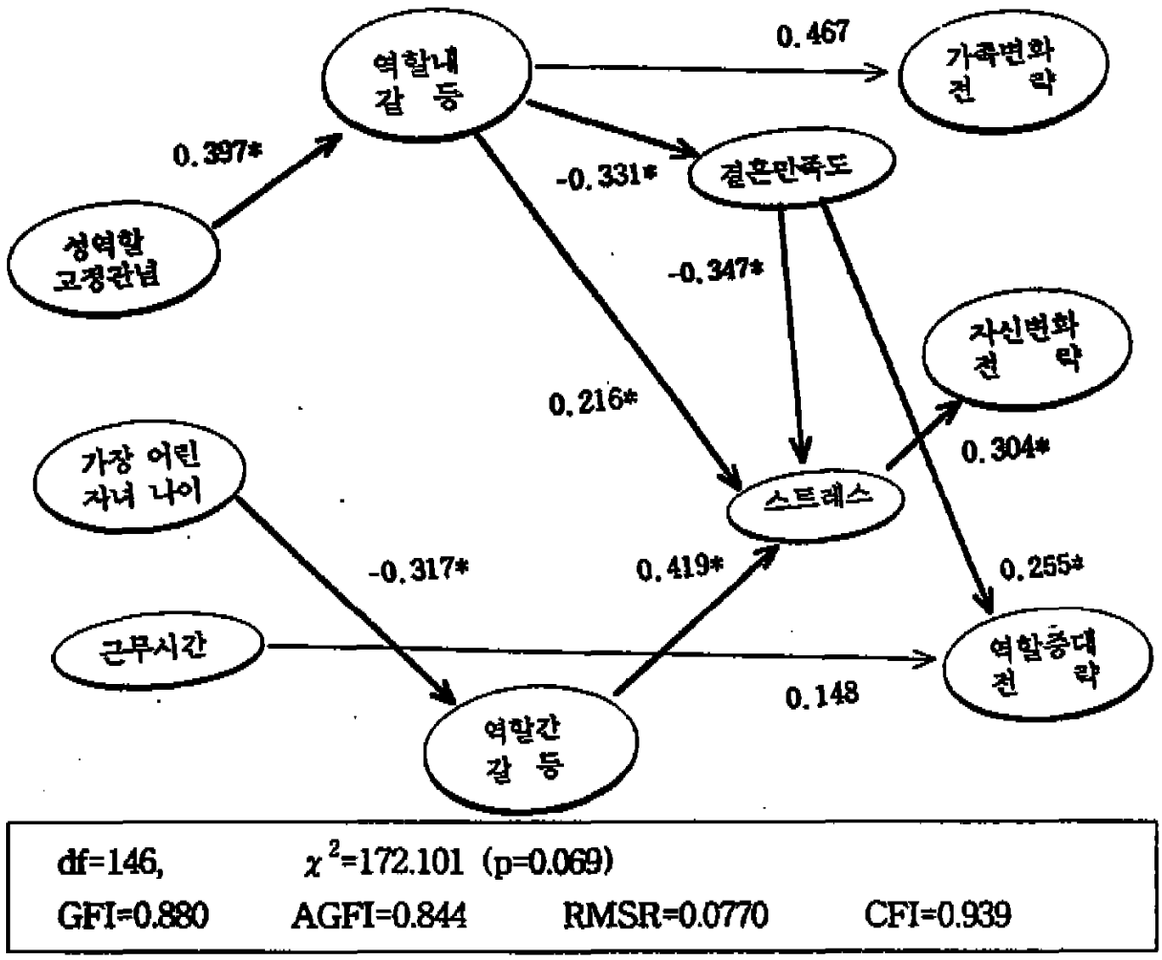
df=144,	χ^2=157.004 (p=0.217)		
GFI=0.893	AGFI=0.859	RMSR=0.0702	CFI=0.972

주 : *는 유의미한 관계를 의미함

<그림 2> 최적의 구조모델: 여성(The Best-Fitting Structural Model for Wives)

2) 최적의 공변량 구조모델: 남성

최종적인 최적의 모델을 찾아내는 과정에서, 부합치(GFI)가 가장 높은 포화모델(df=111, chi-square=144.315, RMSR=0.058, GFI=0.898, CFI=0.922)을 준거모델로 보아 일차적으로 가능한 최적의 모델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이 모델에는 35개의 유의미하지 않은 이론 변수간의 관계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의미하지 않은 35개의 관계를 가장 약한관계부터 단계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이론변수간의 관계가 대부분 유의미하고, 그리하여 인과적 관계를 추론해 낼 수 있는 최적의 남성 공변량 구조모델이 발견되었다(df=146, chi-square= 172.101, RMSR=0.077, GFI=0.880, CFI=0.939). 비교 부합치 (CFI)를 이론구조 모델의 기준으로 사용하여, 이 최종적인 최적 모델(CFI=0.939)을 일차적인 최적 모델(CFI=0.922)과 비교할 때, 비교부합치가 향상되었을 뿐아니라,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들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훨씬 간명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최종적 최적 모델에서는 이론변수간의 관계가 대부분 유의미하기 때문에, 이론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추론해 낼 수 있다(<그림 3> 참조).



주 : *는 유의미한 관계를 의미함

<그림 3> 최적의 구조모델: 남성(The Best-Fitting Structural Model for Husbands)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제기한 이론적 연구모델 내의 이론적으로 관심있는 이론변수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목적을 위해, 이론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이는 두 관계(역할내 갈등과 가족 변화전략, 근무시간과 역할증대전략)를 인과관계의 강도가 다소 약하지만 (유의도 검증에 있어 경계선상에 있음) 모델에 포함시키도록 하였다.

3. 남·녀 모델의 비교

본 논문에서는 공변량구조분석을 사용하여 최적의 남성모델과 여성모델을 개발하여, 맞벌이 부부가 경험할 수 있는 역할갈등, 결혼만족도, 스트레스의 상호 인과관계 및 대응전략 선택과정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최적 모델로 확정된 남녀 모델의 비교 결과, 남녀 모두에게 일반화될 수 있는 세 가지 공통적인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발견되었다: 1) 성역할관념이 보수적일수록 역할내 갈등을 많이 느낀다. 2) 역할내 갈등을 많이 느낄수록 스트레스가 증대된다. 3) 역할간 갈등을 많이 느낄수록 스트레스가 증대된다.

이 결과는 보수적인 성역할관념을 지니고 있을수록 맞벌이 상황에 적응해 나가기 위해 이제까지 익숙해져 온 전통적 역할을 수정해야하는 현실의 필요 앞에서 맞벌이 부인과 남편이 자신의 역할에 대한 기대의 불일치 때문에 당혹감,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역할내 갈등과 역할간 갈등이 모두 남편과 부인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남편과 부인이 각기 다른 종류의 역할갈등을 느낄 것이라고 역할갈등을 성별화하여 분리시키거나(Burke & Weir, 1976), 부인만이 가정과 직장사이에서 역할간 갈등을 심하게 겪는다(Gilbert et al, 1981; Coverman, 1989)는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맞벌이 상황에서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보다 용이하게하기 위한 양성적 역할로의 전이과정에서, 부인이나 남편 모두 역할내 갈등과 역할간 갈등을 겪고 있으며, 그 결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음을 제시해 주고 있다.

맞벌이 부인과 남편 모두에게 일반화될 수 있는 이 세 가지 공통된 관계를 제외하고는, 사회구조적, 상황적 스트레스원, 역할갈등, 결혼 만족도, 스트레스, 대응전략 간의 상호 관계에 있어 남녀 모델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역할내 갈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제시된 세 가지 사회구조적, 상황적 스트레스원 중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은 남녀 모두의 역할내 갈등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은 위에서 언급되었다. 성역할고정관념외에 자녀의 나이나 근무시간은 부부의 역할내 갈등에 아무런 영향도 없음이 발견되었다.

역할간 갈등을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제시된 세 가지 스트레스원 중에서, 어린 자녀의 나이만이 남편의 역할간 갈등에 영향을 주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남편의 역할간 갈등이 증대된다. 부인의 역할간 갈등

에는 성역할 고정관념, 자녀의 나이, 근무시간 중 어느 것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맞벌이 부인들은 개인적으로 지니고 있는 성역할관념과 무관하게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 자신이 맡고 있는 다양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 나가야하는 상황 자체 때문에 역할간 갈등을 느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또한, 상황적 제약(아이가 어려서 더 많은 양육의 부담을 안고 있거나 근무시간이 길어서 시간적으로 제약받고 있는 상황) 자체보다는 이와 같은 상황적 제약 속에서 맞벌이 가정생활을 실제로 감당해 나가는 방식(예, 가사분담 등)이 부인의 역할간 갈등에 더 많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결혼 만족도를 결정짓는 요인으로서, 역할내 갈등과 역할간 갈등은 남편과 부인의 결혼만족도에 각기 다르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남편의 경우에는 역할내 갈등이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키며, 부인의 경우에는 역할간갈등이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는 Burke & Weir(1976)의 예측과 일치한다. 근무시간이 길수록 부인이 느끼는 결혼만족도가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의 근무시간이 긴 경우, 시간부족 및 역할 과중으로 인해 부인 자신이 원하는 만큼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없거나,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스트레스의 결정요인으로서, 역할내 갈등과 역할간 갈등은 남편과 부인의 스트레스를 공통적으로 증가시키고 있음은 이미 언급한바 있다. 그외의 스트레스 결정요인에 있어 부인과 남편간에 현격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편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감소되는 반면, 부인의 결혼만족도는 스트레스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가지고 있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한편, 부인의 성역할관념이 부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수적인 성역할관념을 지니고 있을 수록, 부인의 스트레스는 감소된다. 사회에서 규정하는 성역할관념을 따를 때 스트레스를 적게 느낀다는 연구결과는 아직도 한국사회가 전통적인 성역할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가족의 역할이나 기대치를 변화시키는 전략의 결정요인에 있어, 남녀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편의 경우, 역할내 갈등을 많이 느낄수록, 가족을 변화시키려는 대응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부인의 경우에는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 태도를 지니고 있을수록, 가족변화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반면, 가장 어린 자녀의 나이가 어릴 수록 가족변화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부인들은 가족변화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남편은 역할내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을 수록, 맞벌이 상황에서 남편에게 기대되는 바를 낮추거나 다른 가족에게 역할의 담당을 양도하는 대응행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할내 갈등을 줄이기 위해 남편들이 취하고 있는 가족변화전략은 사실상 남편들의 가정내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경향을 띠고 있다. 한편, 성역할

에 대해 보수적 사고를 지닌 부인들은 그들이 이미 내면화시킨 전통적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가족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대응전략을 적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 자녀를 가진 부인들은 자녀양육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남편의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가족의 변화를 요구하는 대응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부인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자 가족들과의 역할분담이나, 가족들의 기대치를 낮추고자하는 가족변화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역할에 대한 자신의 기대치를 낮추고자 하는 대응전략의 결정요인에 있어서도, 남녀간의 두드러진 차이가 발견되었다. 남편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자신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춤으로써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자 노력한다. 반면, 부인들은 역할간 갈등을 많이 느낄수록 자신의 변화전략을 적게 사용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직장일과 가사라는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맞벌이 부인들은 똑같이 중요한 두 역할사이에서 역할간 갈등을 느끼고 있으며, 상반되는 두 역할을 제대로 해내기 위해 부인들은 자신의 기대치를 낮추는 소극적인 대응전략을 그다지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맞벌이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가족의 변화라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부인들의 경우에는 자신의 기대치를 변화시키는 대응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나 자신의 변화를 꾀하는 대신, 자신에게 맡겨진 이중 역할을 충실히 해내기 위해 자신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전략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남편과 부인간의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남편의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근무시간이 길수록 역할증대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부인들은 역할내 갈등을 많이 느낄 때 역할증대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음이 발견되었다. 남편들은 결혼생활에 만족할 수록 부인을 돕고자 가사를 분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들의 가정내의 역할을 증대시키는 듯이 보인다. 한편, 부인들은 가정과 직장을 양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그들이 담당해 온 전통적인 여성의 역할에서 벗어나도록 기대되는 상황에 접할 때, 자신의 역할에 대한 기대의 불일치로 인해 역할내 갈등을 겪게 되며, 이와 같은 역할내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부인들은 취업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의 전통적 역할(어머니, 아내)에 보다 충실하고자 노력함으로써, 가정과 직장 두 영역에서 그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역할을 다해내고자 노력하는 역할증대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듯하다.

본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남·녀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세 가지 관계를 제외하고는, 변인들 상호 관계에 있어서 남녀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Ⅵ.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은 맞벌이 가정에서 가장 핵심적 문제가 되고 있는 역할갈등과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할갈등과 스트레스의 극복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대응전략의 선택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맞벌이 상황에서 역할갈등과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사회구조적,상황적 요인, 역할 갈등, 결혼만족도, 스트레스, 대응전략 사이의 상호 인과관계를 설정한 통합적인 이론 모델을 개발하였다. 역할갈등과 스트레스를 결정짓는 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전략의 선택에 있어 남편과 부인간의 차이점을 가려내기 위해, 공변량 구조분석을 사용하여, 최적의 남성 모델, 최적의 여성 모델을 별도로 개발함으로써 변수들의 영향에 있어서의 남녀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남·녀 모델의 비교 결과, 보수적인 성역할관념을 지닐 수록 역할내 갈등이 증가되며, 역할내 갈등과 역할간 갈등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라는 남녀 모두에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공통된 상호인과관계가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직도 전통적인 성역할관념이 지배적인 한국사회에서 성별화된 역할을 내면화시킨 한국의 맞벌이 부부들이 맞벌이 상황에 적응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기대의 불일치 때문에 역할내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아울러, 이러한 역할내 갈등과 더블어 가정과 직장의 양립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역할간 갈등이 남편과 부인 모두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는 결과는 맞벌이 가정생활에 있어 부부가 역할갈등과 스트레스 때문에 공통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공통적 어려움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려고 노력해나가는 과정에서 남편과 부인이 각기 경험하는 역할갈등, 결혼만족도, 스트레스를 결정짓는 요인 및 이에 대처하기 위해 취하는 대응전략에 있어 서로 많은 차이가 있다는 본 연구결과는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려고 노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인과 남편이 경험하는 맞벌이 가정생활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맞벌이 부인과 남편들은 맞벌이 가정생활에서 경험하는 역할갈등과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 특정한 대응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특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성역할관념이 보수적일 수록, 남편은 역할내 갈등을 많이 느끼게 되고, 그 결과 가족에게 자신의 역할을 담당해줄것을 요구하거나 자신의 역할에 대한 가족들의 기대치를 낮추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자신의 역할을 축소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부인은 보수적인 성역할관념을 지니고 있을 수록 가족을 변화시키려는 전략을 덜 사용하는 반면, 역할내 갈등을 많이 느낄 수록 역할증대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역할간 갈등과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수록, 부인들은 가족들과 역할을 분담하거나, 가족들의 기대치를 변화시

키는 가족 변화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반면, 남편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수록 자신의 기대치를 낮추는 전략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부터, 맞벌이 부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상호 모순된 대응전략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규범 및 가치의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느리게 일어나고 있어, 이러한 전통적 성역할규범의 영향 하에 경험하게 되는 역할내 갈등에 대처하기 위해서 맞벌이 부부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대응방식을 고수한다. 반면에, 맞벌이 가정생활에의 적응이라는 현실적 필요 앞에서, 적어도 부인들은 역할간 갈등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 가족의 변화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려는 행동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할내 갈등, 역할간 갈등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과정에서 맞벌이 남편과 부인이 이와 같이 일관성이 결여된 대응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는 문화지체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맞벌이 부부들이 겪고 있는 역할갈등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동시에, 역할갈등이 맞벌이 가정의 핵심적 문제임을 다시 확인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인과 남편이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상반되는 대응방식(역할증대전략, 역할축소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은 필요한 변화에 대한 상호합의를 이루지 못한 가운데 한국의 맞벌이 남편과 부인이 서로 갈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맞벌이 가정내의 핵심적 문제가 되고 있는 역할갈등과 스트레스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부인들은 가족의 변화를 시도하는 등의 적극적 변화책을 추구하고 있는 반면, 남편들은 역할 변화를 촉구하는 부인의 요청에 응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자신의 기대치를 낮추려는 대응책이나 역할 축소 전략을 많이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하여 맞벌이 상황에서 직면한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에서 맞벌이 부인과 남편사이에 갈등 및 불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간의 갈등 및 불화는 가정생활을 위협할 뿐아니라, 폭력, 학대, 약물남용 등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간의 갈등 및 불화의 원인이 되는 역할갈등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상담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과 직장을 양립해나가는 과정에서 역할갈등과 스트레스라는 공통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면서도 맞벌이 부부가 각기 다른, 심지어 상반되는 대응전략을 사용하고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관하여 맞벌이 부부간의 상호 대화 증진 노력과, 맞벌이 가정생활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보다 평등한 역할분담 설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상담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맞벌이 부부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맞벌이 부부들이 경험하는 역할갈등과 스트레스의 결정요인, 대응전략의 선택과정의 확인에 중점을 둔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정책입안과 관련된 직접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이 논문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맞벌이 가정지원 서비스 및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맞벌이 상황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더불어 개인적 차원에서 사용하는 보다 효과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돕는 상담서비스 및 교육 프로그램 외에, 역할갈등과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맞벌이 부부들의 이중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맞벌이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회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맞벌이 가정 지원책이 필요한 이유는 현재 개인적 차원에서 맞벌이 부부들이 채택하고 있는 대응전략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스트레스 요인 하에서, 역할갈등, 결혼불만족 및 스트레스를 얼마나 경험할 때, 어떠한 구체적 대응전략을 선택하게되는가의 대응전략선택과정을 살피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응전략의 효과성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들이 선택하고 있는 대응전략을 살펴봄으로써, 역할갈등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기 위해 취하고 있는 이러한 대응전략의 선택이 역으로 그들이 경험하는 역할갈등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 역할내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 현재 맞벌이 부부들이 취하고 있는 대응책은 사실상 전통적 성역할관념에 입각하여 성별화된 역할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고, 역할간 갈등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부인들이 추구하고 있는 가족변화전략은 남편들이 그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려 하며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맞벌이 부부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선택하고 사용하고 있는 대응전략 만으로는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역할갈등, 스트레스 등)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예상되기 때문에, 맞벌이 가정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이 필요하다.

맞벌이 부부의 역할갈등 및 스트레스를 경감시키기 위해 필요한 몇 가지 현실적인 지원책이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어린자녀의 존재가 남편의 경우 역할간 갈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어린 자녀(특히 학령전 아동)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보육시설을 증대시켜야 한다. 근무시간은 남편의 경우에 역할증대전략을 선택하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부인의 결혼만족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부부 모두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그들의 필요에 따라 재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맞벌이 부부들이 겪는 어려움을 경감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맞벌이 부부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선택하고 사용하고 있는 대응전략 만으로는 그들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역할갈등, 스트레스, 부부간의 불화 및 갈등)을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하에,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맞벌이 가정을 위한 몇 가지 현실적 지원책(탁아시설, 유동 근무시간제)등을 제안하였다.

는 한, 몇 가지 서비스 및 지원책의 실시만으로는 맞벌이 부부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맞벌이 부인과 남편에게 취업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양성 평등을 지향하는 사회관념, 성역할 규범의 변화는 개인적 차원에서 만의 노력으로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다. 맞벌이 부부로 하여금 양성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남녀 공동의 육아정책 : 남녀 모두에게 유급 육아휴직제 실시, 유동 근무시간제)를 마련함으로써, 맞벌이 부부들이 안고 있는 이중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 남녀 모두에게 가정과 취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고 어떤 선택의 경우에도 적절한 복지수급권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전통적 성역할 규범으로부터 탈피하여, 평등한 관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아동 양육의 사회화를 위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탁아시설, 부모 모두에게 실시되는 유급 육아휴직제, 유동 근무시간제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맞벌이가정 복지정책이 제도화되어, 양성적 평등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때 비로소 남녀 모두에게 가정과 직장의 양립, 평등한 역할 분담을 전제로 하는 맞벌이 가정이 이룩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맞벌이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안에 덧붙여, 본 연구에 내포된 몇 가지 한계를 지적함으로써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어떠한 스트레스 요인 하에서, 역할갈등, 결혼불만족,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로 경험할 때 어떠한 구체적 대응전략을 선택하게되는가의 대응전략 선택과정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대응전략의 효과성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맞벌이 부부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응전략의 효과를 후속연구를 통하여 평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역할내 갈등, 세 종류의 대응전략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를 연구자가 개발하여 사용하는 과정에서 특정표본을 대상으로 측정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산출하였기 때문에 또 다른 집단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본다. 특히, 자신의 변화전략, 역할증대전략 등은 한 가지 문항만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측정의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상이한 상황 또는 집단에 따라서 사용가능할 것인지를 검증하는 교차타당화 과정을 거친 표준화된 척도제작을 위한 후속연구가 요망된다.

끝으로, 본 연구는 전문직 맞벌이 부부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론 모델의 검증 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 다양한 맞벌이 부부 집단을 대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이론모델을 재검증함으로써(예, 전문직 맞벌이 부부와 저소득 생산직 맞벌이 부부의 비교 등), 본 연구의 이론모델을 일반화시키기 위한 작업이 후속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